

# 18세기 燕行錄에 나타난 觀光用語

- 《노가재연행일기》와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하재철\*

---

## ◁ 목 차 ▷

---

- I. 서언
  - II. 전통여행에 나타난 '관광'의 의미
    - 1. 중국의 '관광'
    - 2. 한국의 '관광'
  - III. 《18세기 연행록》의 관광용어
    - 1. 《노가재연행일기》와 관광용어
    - 2. 《열하일기》와 관광용어
  - IV. 결어
- 

## I. 서언

燕行錄은 조선조에 청나라에 사행단으로 갔거나 子弟軍官 신분으로 청나라를 여행한 사람들의 중국 여행기록이다.<sup>1)</sup> 18세기 연행록은 조선조 英祖, 正祖 시대의 기록으로 朱子學의 '小中華' 시대에서 '北學'이라는 새로운 풍조를 몰고 온 기록물 이어서 수많은 연행록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sup>2)</sup> 金景善(1788-1853)은 《燕轅直指》에서 3대 연행록으로 老稼齋 金昌業(1658-1721)의 《老稼齋燕行日記》, 湛軒 洪大容(1731-1783)의 《湛軒燕記》, 燕巖 朴趾源(1737-1805)의 《熱河

---

\* 해전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부교수

- 1) 제도화된 사행기록에 朝天錄은 天朝인 중국에 朝覲한 기록이란 뜻에 비해 연행록은 燕京인 북경에 사행한 기록이란 뜻이다. 연행록은 행사의 사무적인 실무를 맡던 서장관이 조정에 제출한 謄錄이 있고, 또 사행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개별적으로 기록한 연행록이 있다. 이성후, <노정기문학연구> 《연행록 연구총서1》, 320쪽.
- 2)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혜안, 2007) 25-26쪽에 의하면, 18세기 한문으로 작성된 연행록은 전기 18종, 중기 10종, 후기 14종 등 모두 42종이다.

日記》를 들고 있다.<sup>3)</sup>

《노가재연행일기》는 김창업이 正使 金昌集의 打角<sup>4)</sup> 신분으로 숙종 38년(1712년) 11월 3일 서울을 떠나 다음 해 계사년 3월 30일 서울에 되돌아오기까지 146일의 기행 견문을 일기로 적은 글<sup>5)</sup>이고, 《담헌연기》는 홍대용이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영조 41년(1765년)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저자의 숙부 억(億)이 삼절연공 겸사은사(三節年貢兼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여행할 때 그를 수행하면서 견문한 바를 주제별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다. 《열하일기》는 정조 4년(1780년), 박지원이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청나라 건륭제(乾隆帝)의 70수 만수절(萬壽節)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행사 正使로 갔던 삼중형 朴明源(1725-1790)을 따라 연경(북경)과 열하를 관광하고 기록한 조선조 후기의 대표적인 중국 여행기이다.<sup>6)</sup>

韓國傳統旅行研究의 대표적인 학자 한경수 교수는 한국 고전문헌과 사서를 중심으로 역사적 연구방법과 문헌분석법 및 비교분석법을 이용하여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관광사상, 관광유형, 관광용어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sup>7)</sup>

관광용어는 관광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보았는가의 의미로 특정시대에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는가를 보면 당시의 관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sup>8)</sup>는 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김경선, 〈연원직지 서〉 《연원직지》(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여행록 선집 X)
- 4) 打角과 子弟軍官은 사행단의 책임자(정사, 부사, 서장관)가 손아래 친인척을 개인 수행원으로 기용한 것으로, 그들의 견문도 넓혀주고, 또한 사행길의 대화상대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였다.
- 5) 조규익 외 4인, 《여행록연구총서1》, 학고방, 2006. 185쪽.
- 6) 고미숙 외 2인은 열하일기를 편역할 때, '세계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여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여행기로서의 열하일기를 강조하고 있다. 김태준은 《조선한문학사》(한국의 여행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119쪽 재인용)에서 《열하일기》와 《해유록》을 한국문학의 '2대 기행문학'으로 평가했다.
- 7) 삼국시대의 여행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여행연구9, 대한관광경영학회 제14집, 1999. 高麗時代의 觀光思想과 觀光用語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여행연구5, 대한관광경영학회 제3집, 1993. 조선 전기의 관광사상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여행연구7, 대한관광경영학회 제12집, 1998. 조선후기의 관광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여행8, 관광경영학연구 제4호, 1999.
- 8) 한경수, 〈韓國觀光史 研究의 現況과 接近方法〉, 《관광학연구》 제24권 제3호, 2001. 139쪽.

용어는 해당 시대의 현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며 또한 용어의 변천은 관련현상의 변화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여행자의 기록에 사용된 관광용어는 관광과 관련된 행위, 행위자, 그리고 여타 관련사항을 나타내는 말로서 숙어화된 것이다.<sup>9)</sup>

본고에서는 여행문학적인 측면보다는 중국 여행자의 관광여행기록 중에 사용한 관광용어를 살펴봄으로써 관광용어 속에 담긴 의미와 여행자의 관광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18세기의 대표적인 여행록 중에서《노가재연행일기》는 編年體 형식의 일기체이고, 홍대용의 《담헌연기》는 사건의 본말을 기술하는 記事體이며,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편년체와 기사체를 혼합한 傳記體 형식을 띠고 있다. 《노가재연행일기》가 18세기 홍대용과 박지원은 물론, 다음 19세기의 김정선까지 모두 이 책으로 중국과 중국여행에 대한 교양을 넓히고 또 여행의 필수 안내서로 여장 속에 휴대한 책이었다<sup>10)</sup>는 점과 《담헌연기》가 일기체가 아닌 사건의 본말을 다루는 기사체로 쓰여 졌다는 점<sup>11)</sup>에서《노가재연행일기》와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II. 전통여행에 나타난 ‘관광’의 의미

서양의 관광용어로는 관광과 여행의 의미로 ‘Tour’와 ‘Travel’이 사용된다. 관광의 근원이 되는 ‘Tour’의 어원인 라틴어 ‘tornus’는 ‘회귀를 전제로 한 이동’을 나타내는 말이고, 수고·노고·중노동을 뜻하는 ‘travail’에서 파생된 ‘Travel’이라는 단어는 유럽에서 여행이 위험하고 힘들었던 암흑기(A.D. 500년)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고통과 위험에 가득 찬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up>12)</sup>

9) 한경수, 〈한국에 있어서 관광의 역사적 의미 및 용례〉, 《관광학연구》 제25권 제3호, 2001, 268쪽.

10) 김태준, 〈여행록의 교과서 『노가재연행일기』〉 《여행록연구총서 4》, 3쪽.

11) 홍대용의 여행록으로 유사한 내용의 일기체 형식《을병연행록》이 존재하지만, 한문본이 아니라 한글본이기 때문에 한자용어 비교를 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12) 이주형 외, 《관광학》, 백산출판사, 2007. 24쪽.

‘여행’이 관광과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곳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광’의 현대적 의미는 “일상을 떠나 돌아올 예정으로 목적지에 가서 경관 감상, 문물제도 관찰,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국 고대 전적에서 ‘觀光<sup>13)</sup>’이라는 용어는 ‘한 나라의 盛德과 光輝를 관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행<sup>14)</sup>’이라는 용어는 ‘무리지어 먼 곳으로 가서 일처리하거나 관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국은 조선의 상국으로 존재했고, 조선의 선비들은 상국인 중국으로 여행하기를 원했으며, 연행록은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그들의 사상과 활동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중국과 조선의 ‘관광’ 어원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중국의 ‘관광’

동양에서 ‘관광’이라는 용어는 《周易》의 20卦인 ‘風地觀’에 나타난 「觀國之光 利用賓于王」<sup>15)</sup>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觀國之光 利用賓于王’은 ‘나라의 빛(문물제도, 광화)을 관찰하면 그 나라 왕의 손님노릇하기에 이롭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觀國之光’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sup>16)</sup>

‘관’은 관찰, 시찰, 판단, 유람 등으로, ‘國之光’은 타국의 풍속, 제도, 문물, 형편, 정세, 타국의 실정 등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관광의 범주, 목적, 정신 등을 파악하는데 혼란스럽고, 현대적 의미의 관광과 어떤 정신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

13) 《易·觀》: 「觀國之光, 利用賓于王」. 觀覽國之盛德光輝.]

14) 《禮記·曾》: 「三年之喪練, 不羣立, 不旅行·遠行; 去外地辦事或觀光、游覽的行程。」

15) 《周易》觀卦의 爻辭 六四에 보이고, 象辭에는 ‘觀國之光 尚賓也(관국지광은 손님으로서 높게 대접받는 것이다)’로 기록되어 있다.

16) 손대현은 ‘일국의 정세와 풍습을 유람, 관찰한다는 순례의 의미와 나라의 光을 보고 교양을 높인다’라는 의미로 보았고, 김성혁은 ‘타국을 다니며 그 지방의 풍속, 제도, 문물을 두루 관찰한다’라고 해석했고, 임주환은 ‘나라의 형편, 정세를 판단해보니 어진 임금 아래에서 임금의 신임을 받고 벼슬아치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보았고, 김태영은 ‘다른 나라의 실정을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長谷政弘은 ‘나라의 빛을 관찰함으로써 왕의 빈(손님)다음에 이롭다’라고 하였고, 한경수는 ‘국가의 미를 보는 것은 왕의 신하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도미경: (<관광과 여행의 의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7권 제2호), 32쪽 재인용.

한 언급이 없다. 또한 ‘관국지광’에서는 ‘이동’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어 현대적 의미의 ‘관광’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국지광’이 문헌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周易》과 《文選》에 한하고, ‘관광’이라는 용어가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중국 唐代 盛唐期 시인 孟浩然(688-740)의 시집에 보인다. ‘어쩌다 다행히 시간을 얻어 관광차 서울로 올라왔다(何幸遇休明 觀光來上京)’라는 시구로,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으로는 ‘觀光’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며, ‘관광’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唐代의 성당기 이후(688-907)에는 ‘觀光’이 하나의 성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시대에 崔致遠이 중국에 유학을 했다는 사실과 그의 저서 《桂苑筆耕》에 ‘觀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양자가 시대적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17)</sup>

宋代 程頤(1033-1070)의 문집 《伊川文集 三》에 ‘사방의 인사 중 관광을 원하는 자는 掌儀<sup>18)</sup>의 안내로 줄을 지어 들어와 건물을 구경하고, 禮儀(예부의 의식)를 살피며 絃誦을 들었다(四方人士願觀光者 掌儀列入 遊覽堂舍 觀禮儀 聽絃誦)’<sup>19)</sup>라는 기록이 있는데, ‘觀光’, ‘遊覽’, ‘觀’ 세 용어는 의미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觀光’은 먼 거리의 이동과 관광대상을 포함하는 추상적·포괄적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遊覽’은 실제행동으로 대상을 둘러보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觀’은 자세히 관찰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용례는 연암의 중국 여행기 《열하일기》의 용어분석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元代의 耶律楚材(1190-1244)가 지은 〈和李世榮韻詩〉에 ‘백성들이 덕 있는 자를 환영하고 모든 나라가 기쁘게 관광하네(黎民歡迎德 萬國喜觀光)’<sup>20)</sup>라는 기록이 보인다. 위의 ‘관광’은 ‘덕 있는 자의 치적과 문물제도를 구경하다’의 의미로 ‘관광’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성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주역》의 ‘觀國之光’에서 시작된 관광의 어원은 唐代에 ‘觀光’이라는 하

17) 한경수, 〈觀光의 語源 및 用例에 관한 歷史的 考察〉, 《관광학연구》 제13호, 1989, 264쪽 재인용.

18) 掌儀: 장례원(掌隸院), 예식원(禮式院)에 딸리어 조정(朝廷)의 여러 가지 예식(禮式)에 관(關)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19) 한경수, 〈觀光의 語源 및 用例에 관한 歷史的 考察〉, 264쪽 재인용.

20) 한경수, 〈觀光의 語源 및 用例에 관한 歷史的 考察〉, 264쪽 재인용.

나의 성어로 사용되었고, 송·원대에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한국의 '관광'

한국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 고유의 문자가 없었고, 단지 중국의 한자를 빌려 '觀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재 쓰이고 있는 '관광'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는 다르지만, '觀光'이라는 문자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통일신라시대 최치원의 《계원필경》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선친께서 훈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십년동안 공부하여 진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 하지 말라'.....오로지 아버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바, 진실로 남이 百의 노력을 하면 臣은 千의 노력을 하여 觀光한 지 6년 만에 이름을 金榜에 걸게 되었나이다(亡父誡之曰 十年不第進士則勿謂吾兒.....冀諧養志 實得人百己千之 觀光六年 金名榜尾)<sup>21)</sup>

'觀光六年'의 의미에 대해 양주동 박사는 "6년 동안 苦心力學한 결과"라고 하여 "과거보러 간 지 6년 만에"라고 풀이하였고, 《古法典用語集》과 《국어대사전》에 '관광'은 "과거 혹은 과거보러 감"으로 풀이하고 있다. '관국지광'의 의미로 보면 상국(上國: 중국)의 예악형정(禮樂刑政)을 살피고 왕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역》의 '觀國之光 利用賓于王'과 같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고려시대에 '觀光'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문인들의 문집,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이고, 관광의 어원이라고 하는 '觀國之光'의 용례도 1건 발견되었다. 사용된 용어는 '觀光上國(徐兢, 鄭道傳)', '中國觀光(金堦)', '觀光(李齊賢, 權近, 鄭夢周, 高麗史)', '觀光集(鄭道傳)', '觀國之光(金克己)' 등으로 '觀光'의 의미는 임금의 명을 받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중국 등 선진국의 문물제도를 배우고 관찰하는 것이고, 국내여행을 '觀光'이라고 부른 예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내관광은 遊覽, 遊觀 등으로 표현하였다.<sup>23)</sup> '觀光'에 대한 기록으로 李仁復(1308-1374)의 五言律詩 중에

21) 한경수, 〈觀光의 語源 및 用例에 관한 歷史的 考察〉, 265쪽 재인용.

22) 한경수, 상계논문, 265쪽 참조.

23) 한경수, 전계논문, 273-275쪽 참조.

“부럽게도 그대는 奉使차 왔건만, 난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네(羨君來奉使 愧我未觀光)”<sup>24)</sup> 라는 시구가 보이는데, 최치원의 문집《桂苑筆耕》에 보이는 ‘관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고려시대에는 ‘觀光’이 ‘과거보다’와 ‘중국의 문물제도를 살피는 관광’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개인문집, 여행기록, 조선왕조실록, 가사집, 비문 등의 기록에 ‘觀光’에 관한 용례가 많이 발견된다. 成俔(1439-1504)이 세 차례에 걸쳐 명나라를 다녀와서 지은 《觀光錄》은 일종의 기행시집으로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金堉(1580-1658)이 지은 《海東名臣錄》의 成俔란에 「형 문안공이 따라 북경에 가는 도중에 지은 시를 엮어 ‘관광록’이라 하였는데, 중국 선비들이 보고 탄복하였다. 나중에 구경한 것을 모아 편집하였다(隨兄文安公 赴京道途 酬唱彙爲觀光錄 華士嘆服 求見者全集)」<sup>25)</sup>라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늘날의 관광과 같은 의미의 용어가 사용된 최초의 문헌이라 할 수 있다.<sup>26)</sup>

‘관광’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성어로 사용된 것은 세종 12년(1430년) 명나라 永樂帝가 세자에게 옥대와 環佩를 하사한 것에 대한 謝恩表箋의 배송 기록<sup>27)</sup>으로 명나라 여행을 관광으로 표현하고 있고, 34년 뒤 세조 10년(1464년)에 「표신이 없으면 관광할 때가 없다고 하니, 이는 표신을 망령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無標信則不得觀光之時 妄用標信之致也)」<sup>28)</sup>이라고 한 기록과 세조 11년(1465년)에 「한 성소윤 이령의 딸이 원각사에 관광하다가 내금위 이경손과 간통하다(漢城小尹李聆女 施圓覺寺觀光時 奸內禁衛李敬孫)」<sup>29)</sup>고 기록에서 ‘관광’은 중국과 관련된 외교 문서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세조 때에 이르러 일반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성종과 연산군 때에는 관광은 여가, 위락, 풍류, 유람, 구경, 견문, 장사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 여행하고 체류하는 형태의 풍속의 총칭 즉,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단

24) 한경수, 상계논문, 266쪽에서 재인용.

25) 한경수, 상계논문, 266쪽에서 재인용.

26) 이주형 외, 전계서 25쪽에서 재인용.

27) 《조선왕조실록》 세종12, 「어린 조카가 중국을 관광할 때(當弱姓之觀光獲)」, 위상배, 《朝鮮時代 觀光의 語意 및 形態에 關한 研究-朝鮮王朝實錄을 中心으로-》, 《문화관광연구》 제2권 제3호, 2000, 151쪽 재인용.

28) 《조선왕조실록》 세조 10년 3월 권32, 위상배, 상계논문, 151쪽 재인용.

29) 《조선왕조실록》 세조 11년 4월 권35, 위상배, 상계논문, 152쪽 재인용.

어로 폭넓게 사용되고, 관광의 참여도 지배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sup>30)</sup>

### Ⅲ. 《18세기 여행록》의 관광용어

#### 1. 《노가재여행일기》와 관광용어

##### 1) 여행동기와 목적

노가재의 여행 동기와 목적은 그의 여행일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제1권 〈왕래총록〉에는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자제군관 신분으로, 자유의사로 여행길에 따라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진년(1712년) 6월 23일 백씨가 동지사겸 사은사가 되었다. 그런데 백씨는 중병을 앓은 직후라 자제 간 한 사람이 수행해야 할 형편이며 또 우리의 형제들은 모두 중국을 한번 보고 싶어 하던 때였다. 숙씨(창협)가 가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내가 대신 타각의 명목으로 啓下되어 조통과 비난이 일시에 일어났고 친구들은 만류하였다. 나는 농으로 말하기를 ‘공자께서 미복으로 송을 지나시는 것은 오늘에도 통행되는 일인데 어찌 나에게만 불가한가?’하여 모두 웃었다.<sup>31)</sup>

한인 康田과 노가재의 대화에 중국의 사람과 풍물을 구경하고자 하는 여행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12월 24일 계유일

강전: 당신은 이 곳에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재: 귀국의 사람과 풍물을 보지요. (仍問你來這里何幹, 答看貴邦人物)<sup>32)</sup>

30) 위상배, 〈朝鮮時代 觀光의 語意 및 形態에 關한 研究 -朝鮮王朝實錄을 中心으로-〉 《문화관광연구》 제2권 제3호, 2000, 152쪽 재인용.

31) 〈왕래총록〉 《국역여행록선집Ⅳ》, 42쪽.

32) 김창업 저, 권영대 외 공역 〈여행일기〉 《국역여행록선집Ⅳ》, 민족문화추진회, 1976, 184쪽.



김창업 개인으로서는 친형인 정사 金昌集의 자제군관으로 자유로운 구경이 목적인 여행인데다, 그 스스로 화가이며 산수에 매우 관통하여 문학적 기행일기를 쓰는데 관심을 집중했다.<sup>33)</sup>

## 2) 노정

연행록은 대부분 노정의 숙식과 견문을 적고 있는데, 청이 入關한 후의 對淸使行의 대표적인 노정은 심양-봉천-고가자-백기보-소흑산-광녕-금주-산해관-심하-영평-풍운-옥전-계주-동주-북경으로 보고 있다.<sup>34)</sup>

노가재의 노정은 다음과 같다. 1712년 11월 3일 홍제원에서 전송주를 마시고 출발하여 22일 의주 도착, 11월 26일 도강하여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한다.

홍제원-송도-평산-봉산-항주-가산-정주-차련관-의주-구련성-봉성-송점-통원보-신요동-십리보-심양-백기보-신광녕-여양역-유관-풍운현-계주-홍주-북경

사행단 숙소인 옥하관에서 46일 동안 체류하며 북경 관광 후 다음해 2월 15일 回路하며 일행과 별도로 의무려산과 천산을 유람<sup>35)</sup>한 일을 제외하면 나머지 길은 入燕時와 같은 길이었다. 3월 13일 도강 후 30일에 서울 도착한다.<sup>36)</sup>

## 3) 관광용어

임진(1712) 11월 3일 서울 출발, 22일 의주 도착, 4일 숙박 동안 국내유람에서 사용된 관광용어는 遊覽, 觀, 見 등이 보인다.

11/4 재미일: 파주 객사에서 主守 洪禹鼎(숙부 수주受疇공을 따라 연경에 간

33) 김태준, 〈연행록의 교과서 『노가재연행일기』〉《연행록연구총서 4》, 4쪽.

34) 이경자, 〈老稼齋燕行日記 小考〉《연행록연구총서 1》, 학고방, 187쪽.

35) 노가재는 연행 시 月沙 李廷龜(1564-1635)의 《角山閭山千山遊記錄》 가져가 기록된 코스에 따라 사행단과 별도로 개인여행을 시도하게 되는데, 행동이 자유로운 자제군관 신분이었기에 가능했다.

36) 여정을 정리하면 왕복 5개월, 146일 소요, 서울-의주 1, 070리, 의주-북경 1, 949리, 북경 나들이와 유람 및 둘러간 거리 653리 총거리 3, 642리이다.

적이 있음)와 대화에서, 그의 연경 '遊覽'을 질문하자 五龍亭이나 天主堂은 조선 사람들이 가 보기 어려운 곳인데 자신은 볼 수 있었다고 자랑한다. (45쪽)<sup>37)</sup>

11/8 정해일: (사신 행렬을)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려나와 길을 매우며 구경(觀)하였다. (48쪽)

11/15 갑오일: 조카 濟는 柳鳳山과 함께 망경루, 관덕당, 백상루를 구경(見)하였다. (54쪽)

11/19 무진일: 저녁밥을 먹고 백씨를 모시고 잠깐 올라가서 칼춤을 구경(觀)하다가 달이 뜬 뒤에야 내려왔다. (57쪽)

11/22 신축일: 밤엔 응향당에서 칼춤을 구경하였다(觀). (60쪽)

'연경 유람'용어에서는 외국(북경) 여행지와 관광대상이 제시되고 있고, '觀'과 '見' 모두 '구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觀'은 조선사행단의 행렬 구경, 칼춤 구경 등의 의미로 문화제도의 관찰이 강조되고, '見'은 경관을 감상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1월 26일 도강 12월 27일 북경 도착, 옥하관 46일 체류 관광 후, 2월 15일 回路하며 일행과 별도로 의무려산과 천산을 유람한 일을 제외하고 같은 길로 돌아 오게 되는데, 관광용어는 觀, 望, 見, 觀光, 看, 視, 遊覽, 遊人, 遊山, 周覽, 遊, 遊賞, 遊玩, 遊事 등이 사용되었다.

① 觀(보다, 구경하다): 觀, 入觀, 遍觀, 擁觀

의식적, 의도적인 구경으로 섬세한 관찰을 요하며, 중국인들의 조선사행단(사행 행렬과 조선 선비의 복식) 구경, 노가재와 사행단의 기획된 구경(사찰, 시가, 일출, 낙조, 점포, 폭죽) 등으로 목적지의 경관과 문물제도를 관찰하는 '전통 관광'의 의미를 포함한다.

37) 이하 원문의 인용은 텍스트 〈老稼齋燕行日記〉《국역연행록선집IV》의 쪽수를 표기하기로 한다.

12/4 계축일: 세 사신이 모두 舊遼東으로 가서 永安寺와 白塔을 구경하자고 한다(三行欲過舊遼東觀永安寺及白塔). (80쪽)

(동쪽 각문으로 나와 해자의 북쪽길을 따라 나오다가) 도중에서 백씨를 만났는데 백탑을 구경하고 이제 영안사로 향하는 길이었다(路中遇伯氏先觀白塔方向永安寺). (84쪽)

12/7 병진일: 식후에 유봉산을 데리고 말을 타고 나가 시가를 구경하였다(食後與柳鳳山騎馬出大路觀市肆). (91쪽)

12/15 갑자일: 탐산 뒤 언덕에 이르러 세 사신은 수레를 멈추고 해 뜨는 광경을 구경하였다(後三行皆停車觀日出). (119쪽)

12/18 정묘일: 조금 머물러 있다가 落照의 구경을 하고 싶었지만, 일찍 떠나던 길을 왔기 때문에 인마가 모두 지쳐 있으므로 결국 돌아오고 말았다(欲少留觀落日而以早發遠來人馬皆飢疲遂還). (143쪽)

12/20 기사일: 성으로부터 반 리쯤 떨어진 곳에 동악묘가 있기에 들어가 구경하였다(去城半里有東岳廟入觀). (156쪽)

12/25 갑술일: 성 밖에 한 묘당이 있는데 단청이 자못 사치하기에 들어가 구경했다(城外有一廟堂金碧頗侈遂入觀). (關帝塑像) (191쪽)

12/27 병자일: (미륵원)안팎의 전각들과 옥황루를 구경하고 있는데, 백씨와 부사·서장관이 비로소 왔으므로, 나는 다시 앞 전각과 행랑을 구경했다. (窮見內外殿及玉皇樓伯氏與副使書狀始入來余又觀前殿月廊). (202쪽)

한 호인이 밖에서 따라 들어와 나를 인도해서 안팎을 두루 구경시켜 주었는데 그 뜻이 관곡하였다. (有一胡自外追至引余遍觀內外殿宇其意款曲). (203쪽)

나는 원건과 선흥, 귀동을 데리고 먼저 떠나 동악묘를 구경하였다(余率元建善興貴同先行觀東嶽廟). (204쪽)

계사년 1/10 무자일: 호인들이 따라오며 구경하는 자들이 매우 많으며 잠깐 멈추면 사람들은 문득 둘러싸 헤치고 나가기가 어려웠다(胡人隨而觀者甚多暫住即人輒圍住有難披出). (241쪽)

1/15 계사일: 황제는 창춘원에서 여러 왕들과 연회를 베풀고 등을 구경하는데

몽고왕들도 참가했다고 한다(皇帝在暢春苑與諸王設宴觀燈蒙古王亦參云). (253쪽)

1/25 계묘일: 나도 창춘원을 구경하려고 수역을 시켜 통관에게 말하여 함께 가자고 했다(余欲觀暢春苑使首譯言於通官使得同去). (288쪽)

우리들은 함께 (창춘원)담 밑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구경한다(余等同坐墻下人多來觀). (290쪽)

우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 그 복잡함을 견딜 수 없다(余等同在一處觀者益多不勝其紛沓). (291쪽)

2/1 기유일: (약왕묘)묘문을 나와서 한 점포에 들어가 앉으니 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 나와 둘러싸고 구경을 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자못 견디어 볼 수 없을 정도이다(出廟門坐一店廟中人隨來擁觀令人殆不堪者). (323쪽)

(태양궁전)어떤 사람이 교의를 끌고 와 나를 앉히고 차를 준다. 구경꾼들이 집을 메웠다(有人引交椅坐余進茶觀者滿屋). (325쪽)

2/6 갑인일: (절로 돌아오니 여러 사람들이 어디를 갔었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 번거로와 감히 바로 대지 않고) 다만 점방에 구경하다가 돌아온다고 하였다(往觀店房而來矣). (353쪽)

부성문으로 들어오니 구경꾼들이 매우 많았다. 더러 수백 보씩 따라오기도 하였다. 대개 옥하관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행을 처음 보기 때문이었다(入阜成門路邊觀者甚多或有追及數百步蓋玉河館西邊居人初見使行故也). (359쪽)

2/9 정사일: 방물을 바치는 것을 계기로 하여 태화전을 구경하고자 아침에 식은 밥을 먹고 역관을 따라 나섰다(欲因納方物觀太華殿朝喫宿便隨驛輩). (368쪽)

2/14 임술일: (紙砲를) (불을 앞뜰에 놓고 태우니 소리는 포와 같았고, 불꽃이 온 마당에 흩어졌는데, 그 모양이 난초나 포도 같았다., ....) 백씨와 부사·서장관이 계단에 나와서 구경하였다(伯氏與副使書狀出階上觀之) (396-397쪽)

② 望(바라보다): 望見, 望, 四望, 望見西北, 東望, 北望, 遠望, 垂望  
단순한 원거리 조망, 스케일 큰 규모의 조망, 동서남북과 상하 방향을 제시한 구경 및 경관 감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 11/27 병오일: 도중에 송골산을 바라보았더니(路中望見松鵞山). (65쪽)
- 12/1 경술일: 전날 통원보에 있을 때, 멀리 바라보니(望見). (76쪽)
- 12/2 신해일: 내성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니(登城上四望). (78쪽)
- 12/3 임자일: (조반 후 찰원을 떠나 1-2리쯤 가다가) 서쪽 산을 바라보았더니(望見西邊山). (78쪽)
- 12/4 계축일: 신성을 바라보니(望見新城). (85쪽)
- 12/9 기미일: 서북으로 뻗은 높고 낮은 산들을 바라보니 먼 것은 백여 리, 가까운 것은 수십 리였다(望西北連山高低 遠者百餘里近或數十里). (102쪽)
- 12/11 경신일: 아마도 여산의 물 같았다. 바라보니 구광녕성과 북진묘가 앞에 있었다.(似是閩山之水也 望見舊廣寧城及北鎮廟在前). (106쪽)
- 12/15 갑자일: (永寧寺) 절 문에서 서북쪽을 바라보니 멀리 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산이 특히 컸다. 역졸은 그것이 홍라산이며, 원나라 順帝(1333-1367)가 달아나 죽은 곳이라고 하였다(在寺文望見西北遠山多其中一山特大驛卒指爲紅羅山即元順帝走死處也). (121쪽)
- 12/16 을축일: 도중에 서쪽을 바라보았더니, 세 산봉우리가 하늘가에 솟아 있는데(路中西望三峰出天際). (133쪽)  
멀리 내성을 바라보았더니 서쪽 가에 집 하나가 우뚝 솟아있고(遠望內城西邊有一屋特高). (133쪽)
- 12/17 병인일: 구릉을 오르내리면서 바다를 보니 수면이 널찍한 하나의 판자 같았다. 서쪽 산세를 바라보니 높고 낮은 산들이 곧장 해변으로 연했는데...(丘陵登降時見海水上一廣板西望山勢巍峨起伏直到海邊). (135쪽)
- 12/18 정묘일: 도중에 서북쪽을 바라보니, 산세는 1만 말이 달리는 듯하고 장성은 산세를 따라 굽고 휘어서, 보였다 숨었다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路中望見西北山勢如萬馬奔騰而長城隨山轉折乍現乍隱令人魄動). (138쪽)

여기서 바라보니 장성은 더욱 웅장하게 계곡을 걸타고 봉우리를 연했으며 수많은 성가퀴는 우뚝우뚝 치솟았다(自此望見長城益壯跨壑緣峰萬雉崢嶸). (139쪽)

드디어 내가 먼저 올라가자 그제서야 모두들 올라왔으며 멀리 바라보며 승경이라고 서로 칭송하였다. 정자 안에 구경한 자들의 이름이 많이 적혀 있었다(余遂先登於是諸人皆上來相與垂望稱勝樓中多遊人題名). (142쪽)

12/20 기사일: 북쪽으로 먼 산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산이 겹치었다(北望遠山累累秀媚). (160쪽)

12/21 경오일: 이곳에서 청풍대를 바라보니 은은히 숲 사이로 보여 그윽한 풍경을 느꼈다(在此望清風臺隱暎松間更覺幽勝矣). (168쪽)

12/22 신미일: 길에서 수십 리 앞을 바라보니, 갑자기 바닷물이 일렁이고 모랫벌이 빙 둘러있고 물속에 숲이 비치어 그 경치가 기막히게 좋았다(在路中遠望數十里間忽見海水晃漾宛有洲渚縈紆之狀). (172쪽)

1/19 정유일: (天壇 안)“여기 서서 한번 보시오” 라고 하여, 동쪽을 바라보니 백여 보 밖에 잣나무 숲이 있는데 주위가 수백 보나 되었다(可立此一看也東望百餘步外有柏林周圍數百). (262쪽)

1/19 정유일: 나는 길에 앉아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가 날이 늦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다. 오랜 뒤에 돌아왔다, 겨우 선농단을 지나 서쪽을 바라보니 한 묘의 깃대가 유독히 선명하였다(余坐道上看射不覺日晚良久始歸纔過先農壇望見西邊有一廟旂竿特鮮明). (265쪽)

③ 見(보다, 살펴보다, 구경하다): 見, 西北見, 初見, 始見, 往見, 入見, 出見, 窮見, 見吾行, 未見其奇, 下馬見之, 所見寺觀

원거리 규모의 조망, 의식적/의도적인 아닌 쳐다봄, 풍속과 지형 및 사람 관찰, 시간/방향을 가리키는 동사와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12/2 신해일: 산마루에 올라 서북쪽을 바라보니(登嶺西北見). (77쪽)

12/4 계축일: (영안사의 노승에게)명년 봄 북경에서 돌아올 때 천산을 구경하려고 합니다(明春俺回自北京欲見天山). (82쪽)

부사와 서장관은 벌써 구경하고 백담을 향해서 떠났다고 한다(副使書狀先來見

之已向白塔云). (83쪽)

나로서는 처음 보는 것들이라, 좌우로 두리번거리며 응접할 겨를이 없었다(初見之物左顧右眙應接不暇). (83쪽)

12/9 무오일: 요동에서 230리를 왔으나 처음 보는 것이었다(自遼東行二百三十里而始見此也). (98쪽)

12/10 기미일: 점방 가득히 있던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구경하려고 모두 물려나오고 驛子들의 권마성을 듣고 깔깔대고 웃었으며, 흉내를 내어보는 자도 있었다(店房人皆滿 見吾行 無不出視 聞驛子勸馬聲無不駭笑或有效之者). (101쪽)

12/11 경신일: 신광녕에 닿았는데, 길에서 처음으로 낙타를 보았다.(至新廣寧路中始見駱駝). (105쪽)

12/12 신유일: 성 위를 바라보니 두서너 명의 아이들이 서 있다.... 이 날은 날씨가 맑아 노상에서 해 돋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바퀴가 배나 크며 햇살이 사방으로 퍼져서 마치 바다처럼 일렁거렸다(望見城上立數三兒童...是日天清路上見日出日輪倍大光芒四出蕩漾如海). (107쪽)

12/16 을축일: 중국의 사치스런 풍속을 여기서도 볼 수 있었다(中國奢靡之俗此亦可見). (132쪽)

청돈대에 닿으면 이곳은 바다와 가까워 해 돋는 것을 보기에 좋으므로 아침 일찍이 달려갔는데..... 일출의 장관은 보지 못했다.(至靑墩臺此處去海近觀日出最好故早發馳.....未見其奇). (132쪽)

마을은 쓸렁하였으나 언덕 위에 망해점이 있어 바다를 바라보니 안개가 탁 띄었다.(村居蕭條望海店在原上見海尤闊). (133쪽)

동관역에 이르러 삼행은 모두 성 안에 들어가 민가에 들었다. 찰원 동쪽에 작은 절이 있어 가 보았더니(至東關驛三行皆入城內私家察院東有小寺遂往見). (134쪽)

12/17 병인일: 구릉을 오르내리면서 바다를 보니 수면이 널찍한 하나의 판자 같았다. 서쪽 산세를 바라보니 높고 낮은 산들이 곧장 해변으로 연했는데(丘陵登降時見海水上—廣板西望山勢巍峨起伏直到海邊). (135쪽)

전포가 뒷문 밖에 있다고 하기에 가 보았다. 네 사람이 한방에 앉아서 작은 모자를 만드는 중이었다(聞氈舖在後門往見之四人共在一屋中方造小帽). (136쪽)

12/18 정묘일: 여기서 올라 장성을 보니 서북으로 가로 뻗었으며 동쪽은 넓은 들판이 아득하여서 장관을 이루었다(登此見長城橫張西北而東卽大野茫茫亦非小觀也). (139쪽)

6-7리를 가니, 벌써 망해정이 반공에 드러났다(行六七已見望海亭出半空). (140쪽)

12/20 기사일: 길 북쪽을 보니 문 위에 붉은 글씨로 '봉인대길'이라 쓴 집이 두 서너 군데 있었다(見路北門上帖紅紙書封印大吉四字如是者數處). (160쪽)

12/21 경오일: 문 밖에 삼황묘가 있었다. 들어가 보니 묘 안엔 복희, 신농, 황제의 소상이 있었다. (門外有三皇廟入見廟中有伏羲神農黃帝塑像). (169쪽)

12/23 임신일: 도중에 낙타 세 마리가 지나는 것을 보았다(路中見三橐駝過去). (176쪽)

12/26 을해일: 우리 일행을 이웃 배에서 많이 나와 구경하였는데, 부인도 가끔 있는 것을 보면 전 가족이 모두 배에서 사는 듯 했다. (隣舟之人見吾行多出見往往有婦人似是全家在船者). (197쪽)

한 길가 집 처마에 앵무새가 앉아 있기에 말에서 내려 보았더니 크기는 구육새만하다 (路旁一家簷間坐鸚鵡遂下馬見之其大如鸚). (197쪽)

성 안에 들어가니 길 왼편에 색 그릇 파는 점포가 있었다. 말에서 내려 보았더니 ... (入城內路左有畫器鋪遂下馬見之). (198쪽)

12/27 병자일: (미륵원)안팎의 전각들과 옥황루를 구경하고 있는데, 백씨와 부사·서장관이 비로소 왔으므로, 나는 다시 앞 전각과 행랑을 구경했다(窮見內外殿及玉皇樓伯氏與副使書狀始入來余又觀前殿月廊). (202쪽)

1/19 정유일: 이번에 와서 전후에 구경한 사관이 많지만 토목공사로 말한다면 계주의 향화암만한 것이 없었는데(此來前後所見寺觀多矣 論土木之工無如薊州香火菴). (266쪽)

1/29 정미일: 저녁을 먹은 뒤에 무료하여 다시 서쪽 담에 기대어 몽고인들을 구경하고, 창엽으로 하여금 다시 그 장막을 세어보게 하다(夕食後無聊又據西牆見蒙古使昌擘更數其帳). (319쪽)



## ④ 觀光(관광하다, 구경하다): 觀光, 觀光者, 觀光胡人

문물 제도 관찰(사행단 행차와 복식의 광화), 청나라 국법 제도(만주인 남자는 반드시 기마를 해야 하고, 마차 사용을 금함) 관찰, 화려한 시장 구경 등에 사용되지만, 중국인(胡人)이 조선 사행단을 구경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다.

12/3 임자일: (낭자산에 닿으니, 마을이 자못 번성하였다) 문 앞에 나와서 구경하는 여인들이 많았다(女人多出門前觀光). (79쪽)

12/19 무진일: 이 날은 마침 장날이라 사람과 물건이 혼잡하였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길을 메웠다.(是日值交市人物填咽觀光者擁路). (152쪽)

12/28 정축일: (사신이 예부로 표문, 자문을 바치려 감..... 그런데 이 나라의 국법에 한인만 교자를 타고 청인은 탈 수 없다고 했다). 귀동이도 구경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여 주었다(貴同亦觀光而來言). (207쪽)

3/5 임오일: (찰원 안 호인의 잡화장사) 백씨가 앉은 곳에서는 관광하는 호인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추잡하게 달려드는 광경이 바라다보였다. 종자들이 막을 수 없었다(伯氏所坐處觀光胡人排門而腥臊逼人從者不能禁). (517쪽)

## ⑤ 看(구경하다, 관찰하다): 看, 遍看, 看射

사람과 풍물을 관찰하거나 전각이나 활 쏘는 것을 구경할 때 사용되었다.

12/4 계축일: 나는 종이부채를 꺼내어 노승에게 주고 밖으로 나와 모든 전각을 두루 구경하였는데 모든 제도가 웅대하고 화려하였다(以紙扇與老僧乃出遍看諸殿制度雄麗). (83쪽)

12/24 계유일: 강전: 당신은 이 곳에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제: 귀국의 사람과 풍물을 보지요.(仍問你來這里何幹, 答看貴邦人物). (184쪽)

계사년(1713년) 1/19 정유일: 나는 길에 앉아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가 날이 늦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다. 오랜 뒤에 돌아왔다(余坐道上看射不覺日晚良久). (265쪽)

⑥ 視(살펴보다, 구경하다, 쳐다보다): 俯視, 仰視, 入視

대상을 근거리에서 살펴보거나 위로 보거나 내려다 볼 때 사용한다.

12/3 임자일: 아래로 깊은 골짜기를 굽어보니(俯視深壑). (78쪽)

12/5 갑인일: 다가서서 보니(近前視乃葬人也)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다. (86쪽)

1/8 병술일: 아침에 창엽과 더불어 북쪽 담에 의지하여 몽고 사람들을 구경했다. 몽고사람도 또한 담 밑에 와서 쳐다보니, 네 눈만 서로 대하고 있을 뿐, 말이 통할 수 없었다(朝與昌曄據北牆俯視蒙古亦來牆底仰視四目相對語莫能通). (235쪽)

2/5 계축일: 네 환관이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행인들을 비켜 세운다. 사신은 피하여 골목으로 들어갔으나 우리들은 말에서 내려서 구경하였다. 마차 안에는 여인이 앉아 있었다(有四宦官騎馬揮鞭辟行人使臣避入巷余輩下馬入視車中皆坐女人). (350쪽)

⑦ 遊(유람하다): 遊覽, 遊人, 遊山

‘유람’은 중국인과 대화할 때 조선인이 중국으로 여행 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동과 관광을 포함하고 있다. ‘유인’은 중국인 유람객을 지칭하며, ‘유산’은 명산을 구경하러 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26 갑진일: ‘내 여기 온 것은 비록 유람을 온 것이나 마음에 겸연쩍지 않음이 없더니, 지금 우리 공부자께서도 역시 이 향화를 받으시니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네’라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다(俺之此來雖爲遊覽不無慊然於心者今我夫子亦享此香火我輩不足言也諸人皆笑). (305쪽)

2/1 기유일: (법장사)지금은 자못 황폐해졌는데, 그래도 유람객들이 더러 온다(今頗荒落而遊人猶有來者). (324쪽)

2/9 정사일: 유람객 중에 먼저 온 자가 있기에 내가 글자를 써서 산 이름을 물으니 한 사람이 “토아산” 석 자를 썼다(遊人先有來者余書問山名一人書兎兒山三字). (375쪽)

3/3 경진일: 우리가 마패를 찾아가 보고 이르기를: 김진사 일행은 전적으로 유람을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俺等往見馬貝謂金進士之行全爲遊覽). (509쪽)

3/6 재미일: (영안사의 노승이) 또 말하기를 “노야께서 千山을 유람하려고 하신다니 노승이 함께 가 드려야 마땅한 일입니다만 마침 병세가 있습니다(又曰老爺旣欲遊山老僧宜同往而奈身上有病勢)”. (524쪽)

### ⑧ 기타 용어: 遊, 遊賞, 遊玩, 遊事

‘遊’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遊賞’과 ‘遊玩’은 김창업 자신의 중국 유람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1/20 무술일: 내가 매번 밖에 나가 구경하다가 돌아오면 문득 부채나 혹은 담배를 주는 외에도 그가 달라는 것이면 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余每出遊而歸輒與扇把或南草而外此). (270쪽)

2/1 기유일: (문이 형제가) 역관에게 이르기를, “김진사께서 출입이 너무 잦습니다” 하다가 곧, “이 땅에 들어와서 어찌 구경하지 않겠습니까?(謂譯官曰金進仕出入煩旋曰入此地可不遊賞乎?). (323쪽)

2/23 신미일: 그 소년이 紙筆을 꺼내 묻기를 “선생님께서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대답하기를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유람 차 이곳에 이르렀는데, 뜻밖에 佳士를 만나게 되었소”(其人出紙筆書問曰先生至此何幹余曰外國人因遊玩至此不期得遇佳士). (444-445쪽)

2/24 임신일: 백씨와 부사 서장관이 함께 한 칸에 앉아 있다가 유람하고 온 일들을 묻는다. 내가 상세히 다 대답을 했더니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한다(伯氏與副使書狀官同坐一炕遂問遊事余悉對皆嗟賞不已). (455쪽)

## 2. 《열하일기》와 관광용어

### 1) 여행동기와 목적

#### ① 平生壯遊 중국 관광 욕구

홍대용이 1765년 여행할 때, 그 곳 선비인 육비, 엄성, 반정균 등과 교우를 맺

은 후 귀국하여 동년 6월에 교우의 내용을 정리한 《乾淨衎會友錄》의 서문을 연암에게 부탁하자, 연암은 서문에서 중국에 가고 싶은 열망을 기록하고 있다.

나 연암은 항상 중국의 중원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책을 보고 나니 갑자기 미친 것 같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잊은 듯, 세숫대야를 두고 세수하길 잊은 듯하다(僕常時非不甚慕華中原, 及見此書, 乃復忽忽如狂, 飯而忘匙, 盥而忘洗)<sup>38)</sup>

젊은 시절 유람을 좋아해 우인들과 3차례나 국내유람<sup>39)</sup>을 즐겼던 연암은 우인들의 연행에 자극을 받으면서 중국 관광의 꿈을 키워나간다. 1780년 사행단의 정사 朴明源의 자제군관 신분으로 연경에 가게 되자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중국 관광에 대한 소회를 ‘평생의 장쾌한 유람’이라고 말하며 ‘壯遊’하러 간다고 말한다.

소위 평생의 장쾌한 유람이라고 하면서 특하면 ‘꼭 한 번은 구경해야지라고 하지 않았던가(所謂平生壯遊 恒言曰不可不一觀云者)<sup>40)</sup>

## ② 청나라의 문물제도에 대한 학습 욕구

연암은 연행 후 1781년 박제가의 《북학의》서문을 쓰면서 중국여행(燕行)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전동 시절에 우인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했던 것을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본다는 ‘실사구시’의 학습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sup>41)</sup>

연행에서 문물제도에 대한 학습 욕구는 연암학파에 있어서 공통적이었고, 특화되고 심도 깊은 문물 관찰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朴齊家(1750-1805?)의 《북학의》이다. 박제가가 가장 주목하고 배우기를 갈망한 것은 ‘벽돌’이었는데<sup>42)</sup>, ‘벽돌’에 대한

38) 김명호, 전계서, 72쪽에서 재인용.

39) 연암은 유람을 좋아하여 1765년, 1771년, 1773년 세 차례에 걸쳐 유인호, 이덕무, 백동수, 유득공 등의 友人들과 금강산, 묘향산, 속리산, 가야산 등의 명산과 서도를 유람한 바가 있다.

40)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상, 보리출판사, 2004. 552쪽.

41) 박지원 저,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하(돌베개, 2007) 67쪽: 연암이 중국을 관광하고 돌아 온 뒤 1781년에 쓴 박제가의 《북학의》 서문에 「진실로 비 뿌리고 눈 날리는 날에도 연구하고, 술이 거나하고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토론해 오던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한 것뿐이다」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

42)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130쪽.

연암의 호기심과 관심은 연행 중에 벽돌 가마와 굽기, 벽돌을 이용한 築城와 가옥 건축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학습으로 진행되었고, 귀국 후 실천에 옮겨 실제로 벽돌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짓기도 하고 수원 축성에 사용하기도 했다.

### ③ 중국의 일류명사들과의 학문적 교류와 교류 욕구

洪大容의 《乾淨衡會友錄》의 서문을 쓴 연암은 燕行기간 동안 자신의 학식을 중국의 名儒들과 겨루어보는 한편, 그들에게 조선의 높은 문화수준을 알리고 싶었다. 연암의 중국 명사와의 교류는 洪大容처럼 다정일변도가 아니라, 도전적인 자세로 교류를 구상하고 있었다.

말을 타고 가면서 학식이 본래 없는 나로서 이번 중국에 들어가 만일 큰 선비를 만난다면, 무엇으로 질문하여 그를 애먹여볼까 하고 고심하던 차에 마침내 전에 들은 것 중에서 지전(地轉)과 월세계 등을 찾아냈다(仍於馬上自念 學識固無藉手入中州者 如逢中州大儒 將何以扣質 以此煩冤 遂於舊聞中討出地轉月世界等說)<sup>43)</sup>

이러한 그의 심정은 <도강록> 서두에 보이는데, 《사기》〈자객전〉에 나오는 荊軻의 고사를 빌어 형가가 비수 한 자루를 품고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진나라를 향해 떠났듯이, 그 역시 붓 한 자루를 지니고 중국 인사와 학문교류를 위해 청에 들어가는 마음을 풀어내고 있다. 실제로 열하에서 전 대리시경 윤가전, 산동도사 학성, 거인 왕민호, 귀주안찰사 기풍액등과 필담을 통해 교류하였고, 연경 체류에서는 한림 초팽령(初彭齡)·고역성(高域生)·왕성(王晟)과 강남 출신의 문사 유세기(兪世琦)·능야(凌野)·풍병건(馮秉建)·진정훈(陳庭訓)·서황(徐璜) 등과 사귀기도 했다.

## 2) 노정

《열하일기》의 여정은 의주(6월 24일)-요양-성경-산해관-계주-통주-황성-열하-황성(8월 20일) 및 그 후 9월16까지 황성 체류 기간의 연행을 기록하였고, 한양-의

43)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중 〈곡정필담 후지〉, 보리출판사, 2004. 623쪽.

주, 황성-한양의 여정은 기록하지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행단의 일원이었던 盧以漸(1720-1788)의 여행록인 《수사록》을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양 - 의주(노이점의 《수사록》): 1870년 5월 25일 포시(晡時:오후 5시) 한양 출발, 고양에서 유숙, 과주와 송경, 평산, 단홍, 봉산, 황강, 가성, 순안, 가산, 안주, 선천 등을 지나 6월 15일 의주에 도착, 9일 후 6월 24일 의주 출발.

도강록: 의주성 - 임강진 - 구련성 - 당점 - 봉황성 - 설리점 - 통원보 - 연산관 - 계수점 - 낭자산점 - 요양 - 십리하(6월 24일 - 7월 9일)

성경잡지: 십리하 - 탐보 - 십리하일 - 백탐보 - 성경- 노변점 - 거류하사 - 주야호주일 - 백기보- 이도정 - 소혹산 (7월 10일 - 7월 14일)

일신수필: 소혹산 - 광영일 - 여양일 - 신점자장 - 십산산점 - 금주 - 고교 - 영원주 - 중우소 - 동관 - 중후소 - 냉수점 - 중전소 - 산해관 - 홍화포(7월 15일 - 7월 23일)

관내정사: 홍화포 - 심하보 - 무령 - 요점 - 영평 - 사하일 - 청룡교 - 풍운 - 양수점 - 옥전 - 계주 - 삼하 - 하점 - 통주 - 皇城(연경) (7월 24일 - 8월 4일)

막북행정록: 황성 - 고북구 - 열하 (8월 5일 - 8월 9일)

태학유관록: 열하 (8월 9일 - 8월 14일)

환연도중록: 열하 - 고북구 - 황성 (8월 15일 - 8월 20일)

황성 - 한양 귀국길(노이점의 《수사록》): 연경(9.17) - 산해관(9.24-9.26) - 도강 (10.20) - 한양 도착(10.27)

### 3) 관광용어

《열하일기》에 나타나는 관광관련 용어는 시간과 장소, 대화 상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쌍음절 이상의 관광용어는 觀光上國, 觀光, 遊覽, 觀玩, 遊賞, 歷觀, 歷踏, 遊歷, 壯遊, 行翫, 略觀, 詳翫, 觀玩, 遠遊 등이 있고, 단음절 관광용어는 觀, 翫, 遊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① 觀光上國(상국 즉 중국을 관광하다)

7. 10 병술일(성경잡지), 성경 병부낭중 福寧과의 대화:

연암: 나의 성명은 아무개요, 중국에는 그저 선비의 몸으로 상국에 관광차 왔고, 나이는 丁巳生입니다.(余答姓名 身是秀才 爲觀光上國來 賤降丁巳)<sup>44)</sup>

8. 9 을묘일(막북행정록), 태학 안에서 通奉大夫大理寺卿 尹嘉鎰과의 대화:  
“저는 그저 일개 생원으로 삼종형 大人을 따라 상국에 관광차 왔습니다”(余對以秀才觀光上國 從三從兄大人來)<sup>45)</sup>

<황교문답>중 왕민호의 연암 소개:  
왕민호 왈 “박선생은 사신이 아니고, 그 족형되는 어른을 따라 상국에 관광차 오신 거랍니다”(王君曰 朴先生非使臣也 從其族兄大人觀光上國來也)<sup>46)</sup>

<곡정필담>중 곡정과의 대화:  
연암 왈 “저는 만리 험한 길을 걸어서 상국에 관광차 왔습니다”(余曰 鄙人萬里間關 觀光上國)<sup>47)</sup>

<경개록>중 예부상서 曹秀先과의 대화:  
“당신은 공무로 여기 오셨나요?” “아닙니다. 상국에 관광차 왔습니다”(曹曰你以公事來耶 余曰否也 爲觀光上國也)<sup>48)</sup>

《열하일기》에서 ‘관광상국’이라는 용어는 5번 쓰였고, ‘상국’은 중국(청나라)을 의미한다. 왕민호가 연암을 중국 유상(儒商)에게 소개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인과 연암의 직접대화에서 사용한 것이다. ‘관광상국’은 조선인이 중국으로 이동하여 중국(청나라)의 문물제도와 경관을 포괄적으로 관광할 때, 즉 국외관광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 ② 觀光(관광, 관광하다, 구경하다)

6.27 갑술일(도강록), 연암과 장복의 대화:  
장복이 민망하여 머리를 긁적이며 말한다. “소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두

44)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상, 보리출판사, 2004. 580쪽.

45)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중, 보리출판사, 2004. 531쪽.

46) 상계서, 565쪽.

47) 상계서, 609쪽.

48)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상, 보리출판사, 2004. 560쪽.

곳(구요동과 북진묘)을 관광할 때에는 소인이 두 손으로 눈을 꼭 붙들고 있을 랍니다. (張福憫然搔首曰 小人已知之 兩處觀光時 小人當雙手護眼)<sup>49)</sup>

7. 1 정축일(도강록): 모두 나의 투전 솜씨가 서툴다 하여 판에서 따돌려내고 가만히 앉아 술만 마시라 한다. 속담에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는 격으로 속으로 슬며시 좀 꼴렸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諸君以余手劣黜之座 但囑安坐飲酒 諺所謂觀光但喫餅也 尤爲忿恨 亦復奈何)<sup>50)</sup>

7. 9 을유일(도강록): 요동길 행군 시 군뢰의 나팔소리와 마두의 권마성(勸馬聲)<sup>51)</sup>으로 인해 집집마다 여인들이 나와 문에서 구경한다(每近村閭 輒令軍牢 吹起喇叭 四個馬頭 合唱勸馬聲 家家走出婦女 闔門觀光)<sup>52)</sup>

7.17 계사일(일신수필): 쌍림이 수역에게 박지원에 대해 물었을 때 수역曰: “정사 대감과 일가 되시는 분이시오. 문장을 좋아하는데, 관광차 오셨답니까”(大人人之兄弟有好文章爲觀光來也)<sup>53)</sup>

8.11 정사일(태학유관록), চাল륜십포 근처에서 방황하다 사신일행은 조우: 사신과 역관들은 대궐에서 곧장 이곳까지 오면서 기별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석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을 보고는 뜻밖이라 생각하고 모두들 나보고 “관광벽이 심하다고 놀려댄다”(使臣及任譯自闕直來 未及通 方以爲惜 見余至自意外 皆嘲余癖於觀光)<sup>54)</sup>

〈황교문답〉, 여천 기풍액과의 대화 시 活佛에 대한 망견(望見) 지적과 대화: “관광에 정신이 팔려 두서를 차리지 못한 것 같소”(耽嗜觀光 義不出此) “나는 이미 만리길 관광을 나선 길이라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따라가 금전 옥계를 구경할 수 있었겠소?(吾旣萬里爲觀光來 不者 安從見此金殿玉階)<sup>55)</sup>

49) 전계서, 557쪽.

50) 상계서, 566쪽.

51) 권마성: 높은 관리가 행차할 때 행렬의 위신을 돋우고 일반 행인들을 비켜 세우기 위해 하졸들이 길게 외치는 소리.

52) 상계서, 574쪽.

53) 상계서, 608쪽.

54) 상계서, 539쪽.

55)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중, 보리출판사, 2004. 559쪽.



‘관광’용어는 모두 7번 보이는데, 7. 1 정축일(투전 구경)과 7. 9 을유일(중국 여인들의 조선사행단 구경)의 ‘관광’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인 박지원이 모두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청나라를 관광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사람들에게 ‘觀光癡(관광 중독)’이 심하다고 놀림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 ‘관광’에 정신이 팔렸다고 말한다. 이것은 박지원의 치열한 관광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조선사행단의 요동길 행군 시, 마을 여인들이 군뢰의 나팔소리와 권마성을 듣고 문에서 조선의 사행단의 모습을 ‘관광’하는 것은 외국(조선)의 문물제도를 구경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7. 1 정축일(도강록)에 보이는 ‘관광’은 재미있고 치열한 투전놀이 구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③ 遊覽(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하다)

6.24 신미일(도강록) - 중국의 책문에서 문물을 처음 본 후의 소감

책문은 중국의 동쪽 끝인데도 이와 같거늘 앞으로 유람(구경)할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기가 죽어 그길로 돌아가고 싶었다.(柵門天下之東盡頭 前道遊覽 忽然意沮 直欲自此逕還)<sup>56)</sup>

7.11 정해일(성경잡지): 정진사가 계함, 래원과 함께 역시 유람(구경)을 나서다가 나에게 “혼자 구경하면 무슨 재미요?”하고 나무라고, 래원은 “실로 볼 만한 게 없을 거예요” 라고 한다(鄭進士與季涵來源 亦出行遊覽 詢余曰 獨行遊賞 有何滋味 來源曰 實無可觀)<sup>57)</sup>

8. 5 신해일(막북행정록): 초나흘날, 밖으로 유람(구경)을 나갔다가 저녁 무렵 취하여 돌아와 이내 곤히 잠들었다(初四日 余出遊覽 薄暮醉還 因困睡)<sup>58)</sup>

박지원 熱河行에 대한 생각: 열하에서 곧바로 귀국하게 되면 연경 유람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若自熱河直令東還 於皇京遊覽實爲狼狽)<sup>59)</sup>

정사(박명원)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만리 길을 마다않고 연경에 온 것은 천하를 널리 유람(구경)코자 함이거늘, 지금 이 열하는 前輩들이 아직까지 보지 못한 곳이고, 조선으로 돌아갔을 때 열하에 대해 묻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正使謂余曰 汝萬里赴燕爲遊覽 今此熱河 前輩之所未見 若東還之日 有

56)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상, 보리출판사, 2004. 558쪽.

57) 상계서, 586쪽.

58) 상계서, 644쪽.

59)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상, 보리출판사, 2004. 645쪽.

問熱河者 何以對之)<sup>60)</sup>

8.20 병인일(환연도중록): 내가 마침내 창대를 시켜 보따리를 속속들이 풀어헤쳐 보였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붓과 벼루뿐이었다. 두툼하게 보인 것은 모두 필담초고와 유람(여행)일기였다(余遂令昌大解襍細檢 無他物 只是帶去筆硯 埤然者 皆筆談胡草 遊覽日記)<sup>61)</sup>

‘유람’이라는 용어는 ‘놀며 구경함’,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함’의 의미를 가지는 것 외에도, 위에 사용된 ‘유람’은 장거리(6.24 신미일 중국으로 유람, 8.5 신해일 연경으로 유람), 긴 시간(8.5 신해일 아침에 나가 저녁 무렵 취해 돌아옴), 큰 공간(8.5 신해일 황도에서의 유람)을 필요로 하는 관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④ 遊賞(놀며 구경하다)

7.11 정해일(성경잡지): 급히 일어나 가상루에 갔다. 모두 모여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와 식사 후 사람들을 데리고 거리구경 갔다(急起往歌商樓 諸人又集隱話 歸寓飯後, 携諸人遊賞)<sup>62)</sup>

7.11 정해일(성경잡지·속재필담): 정진사가 계함, 래원과 함께 역시 구경을 나서다가 나에게 “혼자 구경하면 무슨 재미요?”라고 나무라고, 래원은 “실로 볼 만한 게 없을 거예요”라고 한다(鄭進士與季涵來源 亦出行遊覽 誚余曰 獨行遊賞 有何滋味 來源曰 實無可觀)<sup>63)</sup>

‘賞’은 ‘구경하다’의 뜻을 가지며, 遊賞은 ‘놀러 다니며 구경하다’라는 의미이다.

#### ⑤ 기타

歷觀(두루 구경하다), 歷踏(두루 밟아보다), 遊歷(구경하며 지나가다), 行翫(구경을 위해 길을 나서다), 略觀(대략 살피다), 詳翫(상세하게 구경하다), 觀玩(구경하다)

60) 상계서, 645쪽.

61) 박지원 저, 이상호 역《열하일기》중, 보리출판사, 2004. 557쪽.

62) 박지원 저, 이상호 역《열하일기》상, 보리출판사, 2004. 581쪽.

63) 상계서, 586쪽.

8. 3 기유일(관내정사): 돌아오는 길에 回子館(이슬람 교당)을 다 구경하였다(歸時歷觀回子觀)<sup>64)</sup>

8.15 신유일(환연도중록): 우리나라 인사들 중에 멀리 중국의 각 지방을 유람한 자로 신라에는 고운 최치원이 있고, 고려시대에 와서는 겸재 이제현 등이 비록 서촉과 강남땅을 두루 돌아다닌 일이 있지만, 이곳 새북 지방은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다(東方之士 能遠遊於中國之中者 如新羅之崔孤雲致遠 高麗之李益齋齊賢 雖歷踏西蜀江南之地 至於塞北則無因而至也)<sup>65)</sup>

<양엽기 서>: 내가 유람한 곳은 겨우 백분의 일이나 될까, 때로는 우리 역관들이 억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곳을 문지기와 다투어가며 모처럼 들어가면 총총하여 그저 시간이 부족하였을 뿐이다(然余所遊歷僅百分之一 或爲我譯所操切 或爭難門者 方入其中則顧影怱怱 惟日不足)<sup>66)</sup>

6.28 을축일(도강록): 점심은 아직 멀었다고 한다. 마냥 기다리다가 배고픔을 참고 구경을 나섰다.(點心尙遠云 不堪遲待遂忍飢行覩)<sup>67)</sup>

7. 5 신미일(도강록): 통원보에서 방고래와 구들 구조 구경(한중 구들 비교) 주인이 방고래를 열고 재를 긁을 때, 구들의 구조를 대략 살폈다(店主開其內炕烟溝 持長柄鍬子扱灰 余於是 略觀炕制)<sup>68)</sup>

7.14 경인일(성경잡지): 십강자에 도착하여 잠시 쉬고, 정진사·변계함과 함께 거리로 나가 갈대와 대나무로 만든 노담패루(蘆簟牌樓)에 도착하여 그 구조를 상세히 구경하다(余至十扛子小憩, 與鄭卞開行街市 至一蘆簟牌樓 方欲詳翫結構)<sup>69)</sup>

7.25 신축일(관내정사): 이곳이 바로 진사 서학년(徐鶴年)의 집이다. 부사와 서장관이 이곳을 구경하였다고 한다(乃徐進士鶴年家也 副使書狀方在此觀玩云)<sup>70)</sup>

64) 전계서, 641쪽.

65)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중, 보리출판사, 2004. 548쪽.

66)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하, 보리출판사, 2004. 617쪽.

67) 상계서, 560쪽.

68) 상계서, 570쪽.

69) 상계서, 594쪽.

70) 전계서, 620쪽.

歷자는 동사로는 ‘지나다, 경험하다’, 부사로는 ‘두루, 빠짐없이’의 뜻을 가진다. 歷觀, 歷踏, 遊歷, 行翫은 거리 이동이 포함된 두루 구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略觀과 詳翫은 자리의 이동 없이 한 곳에서 관광대상을 살피고 구경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광과 구경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⑦ 觀(관찰하다, 구경하다), 遊(유람하다)

7.10 병술일(성경잡지): 우리 나라들께서는 대궐을 구경하기를 하늘을 바라보듯 하오니 영감께서 들어주실지 감히 아뢰오(俺老爺們爲觀皇都帝居如望天上 敢是大官人肯許麼)<sup>71)</sup>

관부의 제도를 관찰하고자 문안으로 들어가니 막는 사람이 없었다(欲觀官府制度 進入門裏 無人攔阻)<sup>72)</sup>

7.14 경인일(성경잡지): 내일 북진묘를 구경하기로 되어 있어 일찍 돌아왔다(明日將觀北鎮廟 故早還)<sup>73)</sup>

7.15 신묘일(일신수필): 구광녕을 지나 북진묘를 구경하고, 달밤을 이용하여 40리 길을 온 후에 신광녕에서 묵었다(先行由舊廣寧觀北鎮廟 乘月行四十里 宿新廣寧)<sup>74)</sup>

山莊雜記 중 象記: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며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 이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상방을 구경하면 된다(將爲怪特譎詭 恢奇鉅偉之觀 先之宣武門內觀于象房可也)<sup>75)</sup>

幻戲記 後識: 이날 홍려시소경 조광련과 의자를 나란히 하고 요술을 구경했다(是日 鴻臚侍少卿趙光連聯椅觀幻)<sup>76)</sup>

審勢編: 연암 박지원은 말한다. 중국을 유람하는 사람에게에는 다섯 가지 망령된 것이 있다.(燕巖氏曰 遊中國者有五妄)<sup>77)</sup>

71) 상계서, 581쪽.

72) 상계서, 581쪽.

73) 상계서, 596쪽.

74) 상계서, 598쪽.

75)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중, 보리출판사, 2004. 630쪽.

76)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중, 636쪽.

觀은 ‘관광대상인 문물제도를 가까이에서 구경하다, 관찰하다’, 遊는 ‘유람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다.

#### IV. 결어

燕行錄은 조선조에 청나라에 사행단으로 갔거나 자제군관 신분으로 청나라를 여행한 사람들의 중국 여행기록으로, 440여 건의 여행록 중에서 작자가 확인된 것은 418건 이며<sup>78)</sup>, 그 중에서 18세기에 쓰여진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洪大容의 《湛軒燕記》, 朴趾源의 《熱河日記》를 3대 여행록으로 손꼽는다.

한국전통여행연구는 현재까지 관광사상론, 관광유형론, 관광용어론 등 3가지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고, 관광용어는 관광과 관련된 행위, 행위자, 그리고 여타 관련 사항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를 통해 당시의 관광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사용된 용어를 통해 여행자의 관광태도도 알 수 있다.

홍대용의 《담헌연기》는 사건의 본말을 기록하는 記事體로 쓰여 분석 자료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일기형식의 編年體로 쓰인 《노가재연행일기》와 編年體와 記事體가 혼합된 傳記體 형식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노가재연행일기》에서는 관광행위 용어로 觀, 望, 見, 觀光, 看, 視, 遊覽, 遊人, 遊山 등이 사용되었고, 단음절자 ‘觀’, ‘望’, ‘見’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김창업의 널리 보려는 ‘博覽’의 관광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觀’은 의식적, 의도적인 구경으로 섬세한 관찰을 요하며, 중국인들의 조선사행단(사행모습과 조선 선비의 복식) 구경, 노가재와 사행단의 기획된 구경(사찰, 시가, 일출, 낙조, 점포, 폭죽) 등으로 ‘전통 관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望’은 단순한 원거리 조망, 스케일 큰 규모의 조망, 동서남북과 상하 방향을 제시한 구경 및 경관 감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용되었으며, ‘見’은 원거리 규모의 조망, 의식적/의도적인 아닌 쳐다봄, 풍속과 지형 관찰, 시간/방향을 가리키는 동사와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77) 박지원 저, 이상호 역 《열하일기》 중, 585쪽.

78) 임기중, 《여행록연구》, 일지사, 2006. 29쪽.

노가재의 여행(1712년)보다 68년 뒤에 이루어진 《열하일기》는 연암이 《노가재 여행일기》를 숙독하고 여행의 지침서로 삼았다는 점에서 ‘追體驗’의 의미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사용하는 관광행위 용어가 구체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2음절 이상자로 觀光上國, 觀光, 遊覽, 觀玩, 遊賞, 歷觀, 歷踏, 遊歷, 行翫, 略觀, 詳翫, 觀玩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단음절 용어는 觀, 翫, 遊 등이 사용되었는데, 觀光上國, 觀光, 遊覽 등이 주요 관광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觀光上國’은 조선인이 관광 대상국인 중국으로 이동하여 중국(청나라)의 문물제도와 경관을 포괄적으로 관광하는 국외관광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었고, ‘觀光’은 주로 조선인 박지원이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청나라를 관광하거나 빛나는 문물제도를 관찰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유람’은 장거리, 긴 시간,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관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열하일기》의 관광용어에 나타난 연암의 관광자세와 태도는 동행한 사신단 일행에게 ‘관광중독’이라는 조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관광에 정신이 나갔다 할 정도로 치열했고 적극적이었으며, 그 관광 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8세기 3대 여행록으로 초기 중기·후기의 상관관계가 있는 《노가재 여행일기》, 《담헌연기》,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기록 형식상의 문제로 《담헌연기》를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參考文獻】

- 윤대순 외, 《관광경영학원론》, 백산출판사, 2007.  
 이주형 외, 《관광학》, 백산출판사, 2007.  
 고미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2004.  
 박지원, 고미숙 외 편역, 《세계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上, 下》, 그린비, 2008.  
 박지원 저, 리상호 역, 《열하일기 上, 中, 下》, 보리, 2004.  
 조규익 외, 《여행록연구총서7》, 학고방, 200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여행록선집IV, X》, 민족문화추진회, 1976.  
 숭실대학교 한국전통문예연구소, 《여행록연구총서(8, 9, 10)》, 학고방, 2006.  
 임기중, 《여행록연구》, 일지사, 2006.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 하재철, 〈열하일기의 관광현상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09.
- 김동석, 〈『隨槎錄』연구 - 『熱河日記』와 비교연구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2.
- 위상배, 〈朝鮮時代 觀光의 語意 및 形態에 關한 研究-朝鮮王朝實錄을 中心으로〉; 《문화관광연구》 제2권 제3호, 2000.
- 한경수, 〈觀光의 語源 및 用例에 關한 歷史的 考察〉; 《관광학연구》 제13호, 1989.
- 한경수, 〈조선 전기의 관광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여행연구7: 조선시대 3〉; 《대한관광경영학회》 제12집, 1998.
- 한경수, 〈조선후기의 관광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여행8: 조선시대 4〉; 《관광경영학회연구》 제4호, 1999.
- 한경수, 〈한국에 있어서 관광의 역사적 의미 및 용례〉; 《관광학연구》 제25권 제3호, 2001.
- 한경수, 〈韓國觀光史 研究의 現況과 接近方法〉; 《관광학연구》 제24권 제3호, 2001.
- 도미경, 〈동양사상을 근거로 한 관광에 관한 고찰 - 관괘와 관국지광을 중심으로〉; 《여행학연구》 제15호, 2002
- 도미경, 〈觀光과 旅行의 의미에 관한 연구: 주역의 괘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7권 제2호, 2003.

## 【中文提要】

本論文的研究目的在於分析朝鮮18世紀代表性燕行錄金昌業的《老稼齋燕行日記》·洪大容的《湛軒燕記》及其朴趾源的《熱河日記》等作品中所使用的觀光用語進而考察當時的遊覽觀光狀態和遊者的遊覽觀光意識形態。

通過分析，洪大容的《湛軒燕記》是以記事體的型式來記錄事件的本末，作為本論文的分析資料不够充分，因此以編年體型式撰寫的《老稼齋燕行日記》與編年體、記事體混合傳記體型式撰寫的《熱河日記》為重點進行了分析。

《老稼齋燕行日記》中使所用的觀光用語中有‘觀，望，見，觀光，看，視，遊覽，遊人，遊山’等詞彙，其中‘觀，望，見’等詞彙的出現頻率較高。‘觀’是指觀光時遊人有意識地針對人文景觀進行細微的觀察，是按照計劃進行的傳統意義上的遊覽觀光行爲，不僅有遊者的觀察同時也包括中國當地人對朝鮮使行團(朝鮮使行團遊覽形態與其服飾文化)的相對觀察。‘望’指遊者的遠距離眺望，針對大

規模景觀且指定方向的人文景觀進行觀察的觀光行爲, '見'指遊者的遠距離眺望, 但却是無意識的望見(如對地形的觀察), 此類詞彙常與有關時間及方向的動詞相結合. '觀光(觀光、觀光者、觀光胡人)'主要出現在針對文物制度(如朝鮮使行團的出行與服飾)、清朝的國家制度(滿族男性義務騎馬)及民間市場的觀察, 但出現頻率不高.

《熱河日記》作品中的旅程與《老稼齋燕行日記》較相似, 但應該觀注的是其觀光用語的使用更加多樣具體. 作品中所出現的雙音節以上的詞彙有'觀光上國, 觀光, 遊覽, 觀玩, 遊賞', 單音節詞彙有'觀, 翫, 玩, 見, 行'等詞彙, 其中使用頻率較高的詞彙為'觀光上國, 觀光, 遊覽', 義指傳統意義上的遊覽觀光. '觀光上國'多用于朝鮮使行團遊覽中國的文物制度與景觀, '觀光'多用于朴趾源赴清國所描繪的遊覽觀光傳記. '遊覽'一詞多用于遠距離、較長期間且大規模的遺址.

### 【主題語】

연행록, 《노가재연행일기》, 《열하일기》, 관광, 유람

燕行錄, 《老稼齋燕行日記》, 《熱河日記》, 觀光, 遊覽

Yeonhaeng Diary, 《Nogajae Yeonhaeng Diary》, 《Yorha Diary》,  
tourism, sightseeing

투고일: 2016. 1. 15 / 심사일: 2016. 1. 20~2. 5 / 게재확정일: 2016. 2. 15